

# 자녀 양육시간의 경제적 가치\*

윤 자 영\*\*

##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09년 출산율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사교육비 등의 자녀양육비와 기혼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상승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자녀양육비 측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자녀 양육 부담을 밝히고 자녀양육책임의 사회적 분담방안을 강구하여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승권 외, 2003; 박세경, 2006). 많은 연구와 여론이 자녀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부모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자녀양육비용을 공론화하여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았다. 자녀양육에 투입되는 금전지출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비용인 간접비용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비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시간비용은 자녀에게 직접 투자하는 부모의 직접적인 시간 지출, 임금이나 평생소득의 상실로 표현되는 기회비용, 여가시간의 포기 등을 아우른다. 서구의 실증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시간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총비용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Folbre, 2008). 모가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몰입하는 기간은 막대한 평생소득의 상실로 이어진다.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투입하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한다. 이러한 시간 투입은 다음 세대 노동력을 양성

\* 본 논문은 윤자영(2010), 『비시장시간과 자녀의 인적자본형성』 중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ayoungy@kli.re.kr).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자원인 것이다.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되는 시간 자원은 시장경제 영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비가시화되어 있다(Abraham et al., 2004; Folbre, 2008).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의 규모와 그러한 비용을 가정, 국가, 시장, 공동체 등이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다. 자녀 1명이 태어나 의무교육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최소한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가족 영역뿐만 아니라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이 비가시적으로 경제적 보상 없이 제공하는 시간 자원의 투입의 변화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면 시장과 정부가 자녀 양육 부담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반대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의 변화는 가족 영역에서의 인적자본에 투입하는 시간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인 지원 없이 가족 영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는 잠재적 부모의 규모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적정 수준에서 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것인가는 저출산 문제를 이미 심각하게 겪었던 국가들의 고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녀양육비용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자녀양육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간과하여 부모 혹은 잠재적 부모가 직면하는 실제적 자녀 양육 부담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 자원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기여하는 경제적 역할과 기여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부모의 돌봄노동과 자녀의 인적자본형성

G. Becker를 필두로 한 신가정경제학의 중요한 기여는 인간이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개념을 정식화시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인적자본론에서 인적자본은 보통 공식 교육·훈련기관에서 습득한 교육연수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관습에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지출하는 금전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공식 교육 밖에서 부모가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은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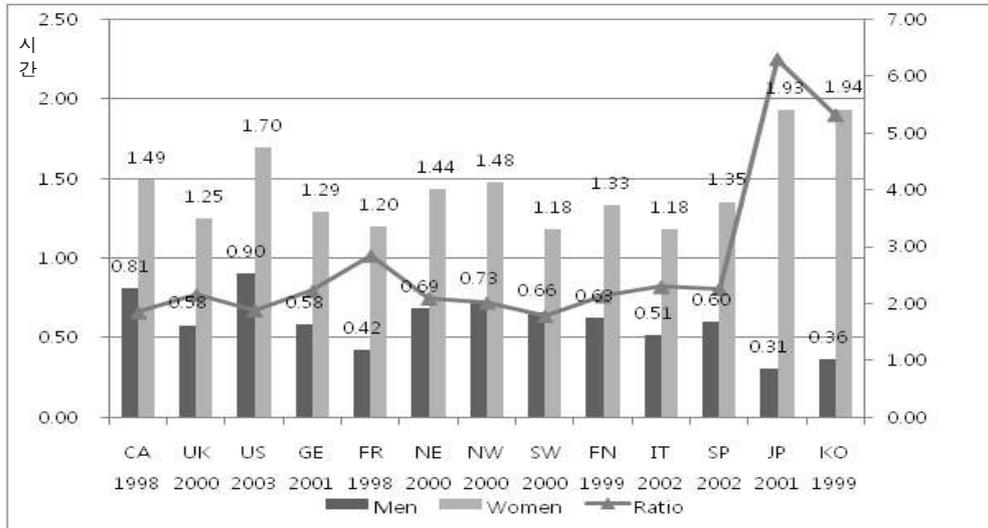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에게 투입한 시간 자원인 돌봄노동은 고용주를 비롯한 국민경제의 여러 주체에 중대한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아이들

의 인지적 능력을 배양시키거나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고용주는 자본과 결합하여 생산에 투입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Folbre(1994b)는 부모의 자녀 양육 노동이 부모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효용 증대만을 위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민 경제로 그 혜택이 공유된다는 점을 들어 아이는 ‘공공재(public goods)’라 주장하였다.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국가 복지재정체계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노력의 결과 양성된 미래의 노동력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노릇을 한 적이 없는 사람도 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한다. 부모의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은 개인 가족이 사적으로 담당하지만, 자녀 양육으로 인한 혜택은 부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유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은 이렇게 재정적 외부성(fiscal externality)을 발생시킨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가족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돌봄노동의 공급은 역사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재정적 외부성과 돌봄노동의 불이익은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부모의 돌봄노동 책임과 노력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출산 의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Folbre, 1994a).

출산과 자녀양육의 동기와 자원 투입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시간의 양과 가치의 변화 추세를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의 국가통계위원회(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는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되는 자원 가운데 시간 자원에 대한 관심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Abraham et al., 2004). 그들은 가족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무상으로 무한하게 공급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가족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의 배분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이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했던 시간량과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므로 인적자본계정(Human Capital Accounts)을 만들고 시계열을 구축하여 국제 비교 및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Fraumeni, 2009). Fraumeni(2009)는 기존의 인적자본지표(Human Capital Indicators)는 교육수준과 형태, 비용과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고, 리스본 회의 유럽 인적자본지수(Lisbon Council European Human Capital Index)는 공식 교육을 위한 지출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 교육에 할애한 시간의 기회비용도 포괄하고 있지만, 지표와 지수를 넘어서서 인적자본의 양과 화폐 가치를 추산하고 계정화하여 국가간 비교나 GDP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입은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자원

1)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젊을 때 시장노동을 통해 연금 기여분을 납부했고, 그 덕으로 노후에 혜택을 받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제정을 꾸준히 지탱하는 것은 미래의 노동력이며,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부모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납부했다면 비부모는 부모의 노력에 함께 혜택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선별 OECD국가 부모의 일일 평균 돌봄노동시간 비교



주: 돌봄노동은 아이 먹이기, 씻기기, 간호,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을 포함.  
 자료: Mutinational Time Use Survey, 생활시간조사, 일본시간사용조사 원자료, 18세 미만 자녀를 둔 24~54세 부모 표본.

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경제의 인적자본형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가족 영역의 인적자본형성의 역할과 비중은 한 사회의 경제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조건은 미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복지 및 가족 정책과 같은 거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가운데 가족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지출 가운데 0.1%만이 가족 정책에 할당되고 있어, 지출 비중이 원래 높았던 복지 사민주의 국가들이나 점진적으로 비중을 높여 왔던 다른 국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인적자본형성에 가족이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클 것임을 시사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24~54세 부모의 일일 평균 자녀 돌봄노동시간을 제시한 [그림 1]은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가 담당하는 돌봄노동시간이 일일 평균 약 2시간으로 선별 국가 중에서 가장 길 뿐만 아니라 남성과의 격차 또한 가장 크다.

Folbre(2008)는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물질 자원만이 아니라 시간 자원이 필수 요소이며, 이는 가족 영역이 사회경제 전체를 대신하여 치르고 있는 비용이므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2000년 미국에서 총지출 가운데 시간비용이 차지하는

2)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라 함은 부모가 돌봄노동으로 인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소득의 상실로 측정되는 시간비용 개념과 대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을 위해

비중은 양부모 가구에서 자녀 1인당 평균 61.7%였고,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시간 비용의 비중이 높았다. 시간비용에 대한 고려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에서는 중산층 양부모 가족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 한 명에 대해 부모가 지출한 연평균 총 금전지출의 10~26% 정도에 해당하는 세계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면,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공공 지원의 비중은 평균비용의 4~9% 정도에 그쳤다. 시간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자녀양육비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규모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 III. 분석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을 추정하고 자녀 1인당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된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이다. 부모 이외의 친지(조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외하고,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경제적 가치 추산방법상 절차는 1) 부모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정의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시간을 추정한 다음 3)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다.

자녀돌봄노동에 투입된 실제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돌봄노동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녀 돌봄노동시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제3자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제3자 원칙’이란 부모가 수행하고 있는 특정 행위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고용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해서 자녀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노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Reid, 1934). 이러한 원칙에서라면 그 행위가 정신적 만족과 기쁨을 동반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는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Folbre, 2008). 그러나 방법론의 실제에 있어서 자녀 돌봄노동의 정의와 측정은 사용하는 조사 자료의 내용과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한 시간사용내역 가운데 다음과 같은 행동만이 자녀의

---

돌봄노동시간은 자녀 출산과 양육의 적극적 인적자본 축적과 건강과 생계 유지라는 소극적 인적자본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필수적’이라고 해서 측정된 시간비용 수준이 사회적으로 적정(optimal)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이 일부 계층에서는 과잉,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과소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수준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이 공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양육문화와 조건하에서 돌봄노동의 시간량과 가치를 추정하고자 함이며, 적정 상태에서의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표 1>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투입 행동 내역

돌봄노동	가사노동
신체적 돌보기	식사준비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설거지, 식후정리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숙제 및 공부 봐주기	옷 정리
간호하기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의류수선·세탁 서비스 받기
기타 학생 보살피기	재봉, 뜨개질
자녀교육 관련 자원봉사	방·물품 정리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집안 청소(쓸기, 닦기)
	그외 청소 및 정리
	집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그외 집 관리
	시장보기
	쇼핑하기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가계부 정리
	가정계획(저축, 가족회의)
	은행 및 관공서 일 보기
	기타 가사일
	가정관리 관련 이동

자료: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인적자본형성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시간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에 투입된 시간을 계산한다. 그런데 전체 가구원에게 그 혜택이 공유되는 가사노동 가운데 자녀 양육에 해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의 문제가 간단치 않다. 가계소비조사가 누구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는지 조사하지 않는 것처럼 시간사용조사도 어떤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투입된 시간을 분리해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이 문제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노동이라고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일반 가사노동을 자녀 양육시간으로 분리 포함시킬 때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가사노동시간은 사유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혼 여성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요리의 결과물인 음식은 본인과 그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제공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의 공공재로서의 수준에 대한 실증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수행하는 전체 가사노동시간 가운데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해

야 하는지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의 공공재적인 수준을 가정하여 1인당 유효(effective)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을 산정한다.

$$T_{ij}^e = \sum_i \frac{T_{ij}}{N^\alpha}$$

$i$ : 가사노동

$j$ : 부, 모

$T_{ij}$ : 부모( $j$ )가 투입하는 가사노동( $i$ )시간

$N$ : 전체 가구원수

$\alpha$ : 경합성(rivalry)의 정도,  $0 \leq \alpha \leq 1$

$$t_j^e = \frac{t_j}{n^\alpha}$$

$j$ : 부, 모

$t_j$ : 돌봄노동시간

$n$ : 자녀의 수

$\alpha$ : 경합성(rivalry)의 정도,  $0 \leq \alpha \leq 1$

여기서  $T_{ij}$ ,  $t_j$ 는 부모가 각각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을 위해 수행한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이다. 1인당 유효 가사노동시간( $T_{ij}^e$ )은 부모가 각각 전체 가구원을 위해 지출한 총 가사노동시간을 전체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1인당 유효 돌봄노동시간( $t_j^e$ )도 전체 자녀에 대해 수행한 돌봄노동시간을 자녀의 수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경합성의 정도,  $\alpha$ 는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시간의 공공재적 성격의 수준을 가정하는 지수이다. 즉  $\alpha$ 가 0이면 시간이 완전 비경합적인 공공재인 극단적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가사노동시간을 통해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돌봄노동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가 둘인 부모가 1시간의 시간을 자녀 돌봄 행동, 즉 놀아주기에 쓴다면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 모두 1시간에 해당하는 효용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alpha$ 가 1이면 가사노동이 순수하게 경합적이라는 또 다른 극단적 상황을 지칭한다. 즉 자녀가 2명일 때 부모가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자녀는 각각 30분에 해당하는 효용밖에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alpha$ 가 0과 1 사이라면 어느 정도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만 완전한 사유재는 아닌 중간적 경합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유재와 공공재의 중간인 반공공재적인 성격에 대해  $\alpha=1/2$  을 가정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유효 시간 투자는 가구원수와

$\alpha$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로 다른 두 가구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해 같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유효 시간은 감소할 것이고  $\alpha$ 가 클수록 (즉 사유재에 가까울수록) 역시 유효 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자녀양육시간을 추정한 다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다. Folbre(2008)는 자녀 돌봄 시간을 가치화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접근법을 체계화했다. 첫 번째 방법인 기회비용법은 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한 시간을 시장노동에 투입했다면 얼마나 벌었을 것인가라는 시나리오에 기초한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에 상실하는 소득을 기회비용이라 간주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시장노동과 돌봄노동 간에 시간배분을 하였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기초한 자녀 돌봄 시간의 가치는 부모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의 잣대로 삼는다. 두 번째 방법인 대체비용법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시나리오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만일 부모가 아닌 제3자를 동원했다면 사회재산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를 가늠케 한다. 따라서 이 방법에 기초한 자녀 돌봄 시간의 가치는 사회가 평가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시장대체제의 가격을 가치평가의 잣대로 삼는다. 이때 어떠한 시장대체제를 준거로 할 것이냐에 따라 일반인 대체비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서비스의 임금률을 적용하여 대체비용법에 의한 부모의 자녀 인적 자본투자 시간비용을 계산한다. 대체서비스의 임금률은 부모의 인적자본과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균’임금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임금률 자료는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기반한 중분류 직종별 평균임금률 자료를 사용했다. ‘평균’임금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했지만,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임금률을 적용하여 다양한 범위의 부모의 시간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했다(표 2 참조). 2004년에 모든 직종의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6,320원이었는데, 본 연

<표 2> 대체비용법 가치평가 방법

	고생산성 가치		중생산성 가치		저생산성 가치	
	가사노동	돌봄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가정	부모 시간 투자의 생산성 차이					
	고생산성		중생산성		저생산성	
대체서비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42)	교육전문가 (25)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91)	사회서비스 (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5,038원	7,230원	3,934원	6,577원	2,840원	2,840원

자료 : 통계청 KOSIS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괄호 안은 직종 중분류 코드.

구에서 가정한 중생산성에 기반한 부모 시간의 생산성은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부모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적 지출과의 대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동패널의 가구소비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1인당 금전지출을 계산했다.

## IV. 분석 결과

### 1. 가구형태별 자녀양육 시간비용

우선 전체 가구와 세대 형태별로 나누어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시간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공공재적인 성격의 수준을 지칭하는 경합성의 수준을 가정하고 다양한 범위의 자녀 1인당 ‘유효’ 시간을 계산하였다. 부모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투입한 시간이 완전 공공재적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가사노동으로 자녀 1인에게 한 달에 114시간, 부는 약 13시간을 투입했다. 돌봄노동은 자녀 1인당 모는 56시간, 부는 12시간을 투입했다. 돌봄노동시간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보아, 자녀양육시간에서 가사노동을 제외할 경우 자녀를 위해 투입하는 총 시간비용이 과소추정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둘 다 완전 사유재로 가정할 경우, 모의 가사노동시간은 한 달에 35시간, 돌봄노동시간은 한 달에 41시간이다. 가사노동시간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배제할 경우,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입분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차이를 살펴보자. 양부모 가구의 모에 비해 한부모 가구의 모는 상대적으로 자녀 1인당 시간 투입량이 적는데, 한부모 가구의 모는 한 달 평균 115시간의 시장노동에 참여해 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양부모 가구의 모는 84시간 정도의 시장노동을 하고 있다. 양부모 가구 모의 월 소득 평균은 442,550원인 데 비해, 한부모 가구 모의 월 소득 평균은 774,060원이다. 한부모 가구의 부는 양부모 가구의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시간 투입량이 많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부모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 시간의 생산성의 정도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부모 시간 투입의 가치의 변화의 폭이 크다. 부모 시간의 생산성 정도에 따라 가치의 최소 수준과 최고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성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0~18세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에서 모의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473,960~

<표 3> 가구 형태별 부모의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시간과 경제적 가치

(단위: 시간, 원)

		전체		양부모		한부모	
		모	부	모	부	모	부
공공재	가사노동	114.86	13.71	116.68	13.18	99.56	41.09
	돌봄노동	56.52	12.14	58.67	12.02	38.50	18.16
반공공재	가사노동	63.52	7.48	63.49	7.17	64.84	26.10
	돌봄노동	48.19	10.34	49.98	10.25	33.04	14.93
사유재	가사노동	35.13	4.08	34.54	3.90	42.22	16.58
	돌봄노동	41.08	8.81	42.58	8.74	28.35	12.28
고생산성	공공재	987,340	156,827	1,012,028	153,312	779,982	338,263
	반공공재	668,392	112,440	681,189	110,227	565,539	239,470
	사유재	473,960	84,241	481,844	82,826	417,717	172,349
중생산성	공공재	823,622	133,763	844,899	130,910	644,922	281,048
	반공공재	566,802	97,429	578,464	95,615	472,383	200,903
	사유재	408,356	73,983	415,908	72,812	352,588	146,022
저생산성	공공재	486,735	73,410	498,001	71,572	392,110	168,249
	반공공재	317,241	50,609	322,240	49,475	277,975	116,539
	사유재	216,420	36,606	219,014	35,897	200,439	81,976
시장노동시간		87.70	202.03	84.39	202.96	115.53	154.14
월 소득		477,830	2,179,910	442,550	2,198,940	774,060	1,197,920
총 가구원수		3.27	3.36	3.38	3.38	2.36	2.48
총 자녀수		1.38	1.38	1.38	1.38	1.36	1.48

자료: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987,340원이고, 부의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는 84,214~156,827원이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이 모든 가구원에게 동일하게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완전공공재 가정이나 한 사람의 효용의 증가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완전사유재 가정보다는 반공공재 가정이 보다 타당하며, 부모의 생산성이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수준보다는 낮고 장기적인 인격적 관계가 배제된 일용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다는 중간 생산성 가정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시간이 반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시간당 생산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미성년 자녀 1인에게 모는 한 달에 566,802원에 해당하는 시간을 투입하고 부는 한 달에 97,429원에 해당하는 시간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바꿔 말하면, 2004년 현재 미성년 자녀의 인적자본형성 과정에서 1인당 필요로 하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가 한 달에 평균 부모 합쳐서 664,231원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의 취업 형태별로 부모의 시간 투입에 대해 살펴보자(표 4 참조). 우선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에서의 모가 자녀 1인에게 투입하는 시간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녀 양육에 특화하는 홑벌이 가구의 모는 맞벌이 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운 양의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가사노동의 차이도 상당히 존재하나 돌봄노동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 홑벌이 부의 자녀 1인에 대한 시간 투입이 맞벌이 부에 비해 약간 더 크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취업한 한부모 여성은 맞벌이 모와 비슷한 양의 시간 투입을 하고 있다.

모의 생산성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맞벌이 모의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는 297,382 ~ 721,905원이며 홑벌이 모의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는 689,057 ~ 1,302,485원으로, 홑벌이 모가 맞벌이 모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시간이 반공공재적이고 그 시간의 생산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맞벌이 모는 한 달에 378,671원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녀 1인

<표 4> 모의 취업 형태별 부모의 한 달 평균 자녀 1인당 양육시간과 경제적 가치

(단위: 시간, 원)

		맞벌이		홑벌이		한부모 취업	한부모 비취업
		모	부	모	부	모	모
공공재	가사노동	96.80	14.00	136.70	11.25	78.28	132.49
	돌봄노동	32.40	10.41	84.90	13.13	23.79	61.26
반공공재	가사노동	51.84	7.50	75.47	6.21	50.43	87.76
	돌봄노동	26.57	8.55	75.01	11.60	20.05	54.16
사유재	가사노동	27.76	4.02	41.66	3.43	32.49	58.13
	돌봄노동	21.79	7.02	66.27	10.25	16.89	47.88
고생산성	공공재	721,905	145,821	1,302,485	151,619	566,385	1,110,381
	반공공재	453,247	99,586	922,520	115,170	399,006	833,692
	사유재	297,382	70,972	689,057	91,382	285,795	639,042
중생산성	공공재	593,886	123,563	1,096,133	130,622	464,431	924,110
	반공공재	378,671	85,723	790,223	100,736	330,239	701,442
	사유재	252,508	61,953	599,784	80,903	238,895	543,602
저생산성	공공재	366,914	69,337	629,328	69,246	289,879	550,245
	반공공재	222,671	45,578	427,353	50,589	200,157	403,043
	사유재	140,715	31,339	306,541	38,849	140,240	93,820
시장노동시간		172.53	215.12	0.00	208.66	190.21	0.00
월 소득		898,340	2,132,170	0	2,454,510	1,274,480	0
총 가구원수		3.49	3.48	3.28	3.28	2.41	2.28
총 자녀수		1.49	1.48	1.28	1.28	1.41	1.28

자료: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에게 투입하고, 홀벌이 모는 한 달에 790,223원에 해당하는 시간 투입을 하고 있다. 정부 공공근로 사업의 한 달 평균소득이 80만여 원(2009년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 일 자리 인력 한 명이 홀벌이 가구 모의 자녀 1인을 양육하는 시간을 대체하는 정도임을 보여준다. 부는 한 달에 97,429원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녀 양육에 투입하고 있어 모에 비해 자녀 양육에서 시간 투입이 적는데, 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시간 투입을 나타내고 있다.

## 2. 0~18세까지 자녀 양육 총시간비용

다음에는 자녀 1인을 0세에서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그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자녀 1인 가구에 한정하여 연령대별(0~6, 7~12, 13~18)로 투입된 시간의 양을 연간 추정치로 환산하고, 각각의 연령대별 수치를 6배하여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미성년기에 부모가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비용을 계산했다. 따라서 자녀 1인이 0세부터 18세까지 계속해서 맞벌이 가구 혹은 홀벌이 가구에서 양육되었다고 가정한다<sup>3)</sup>. 원칙적으로는 다년간에 걸친 부모의 시간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시점에서의 대체서비스의 임금률로 가치 평가된 시간비용이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5> 1자녀 양부모 가구의 자녀 1인 0~18세까지의 총 시간비용

(단위 : 원)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	부	부모	모	부	부모
고생산성	공공재	158,539,473	33,145,731	191,685,204	257,070,562	27,853,806	284,924,368
	반공공재	114,923,544	26,240,636	141,164,180	192,819,683	22,443,563	215,263,246
	사유재	89,741,875	22,253,978	111,995,853	155,724,421	19,319,958	175,044,379
중생산성	공공재	130,927,092	28,047,515	158,974,607	214,269,856	23,689,152	237,959,008
	반공공재	96,868,921	22,655,566	119,524,486	164,098,566	19,464,481	183,563,047
	사유재	77,205,426	19,542,522	96,747,948	135,132,159	17,025,365	152,157,524
저생산성	공공재	79,912,624	15,812,132	95,724,756	126,960,610	13,128,945	140,089,555
	반공공재	55,325,638	11,919,621	67,245,259	90,741,377	10,079,106	100,820,483
	사유재	41,130,334	9,672,279	50,802,613	69,830,193	8,318,280	78,148,473

자료 :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3) 이러한 가정은 분석의 편의상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며, 앞 절에서 제시된 표들을 이용하여 다른 경우, 즉 6세까지는 홀벌이 가정에서 자라고 그 이후에는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간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5>에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듯이, 중생산성·반공공재 기준으로 자녀 1인에게 맞벌이 가구의 모가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총 9,700만 원 정도이며, 부의 시간 투입의 경제적 가치는 총 2,200만 원에 이르렀다. 부모의 시간비용을 합산하면 자녀 1인을 0세부터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투입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1억 1,900만 원 정도이다. 반면 홑벌이 가구는 같은 기준으로 모는 1억 6,400만 원, 부는 1,900만 원, 부모 합산하면 1억 8,300만 원 정도에 달했다. 홑벌이 가구는 자녀 1인을 양육하는 데 맞벌이 가구의 시간 투입비용의 54% 정도를 더 지출했다.

<표 6>에서는 자녀 1인을 0세에서 18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생산성·반공공재 기준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1인에 대한 투자의 시간비용과 금전 비용을 합한 총비용은 약 3억 8,400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의 총비용은 약 4억 1,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시간비용의 비중은 맞벌이 가구가 31%, 홑벌이 가구는 44%로 자녀 양육에 특화하는 전업 모가 자녀 1인을 양육할 경우 시간 자원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표 6> 자녀 1인당 0~18세 동안 양육에 드는 시간비용의 비중

(단위 : 원, %)

		시간비용(A)		금전 비용(B)		비중(A/(A+B))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고생산성	공공재	191,685,204	284,924,368				
	반공공재	141,164,180	215,263,246	264,633,894	229,888,636	35	48
	사유재	111,995,853	175,044,379	189,082,083	162,447,678	37	52
중생산성	공공재	158,974,607	237,959,008				
	반공공재	119,524,486	183,563,047	264,633,894	229,888,636	31	44
	사유재	96,747,948	152,157,524	189,082,083	162,447,678	34	48
저생산성	공공재	95,724,756	140,089,555				
	반공공재	67,245,259	100,820,483	264,633,894	229,888,636	20	30
	사유재	50,802,613	78,148,473	189,082,083	162,447,678	21	32

자료 : 2004년도 ; 생활시간조사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

### 3. 거시경제지표와의 대비

부모의 양육 시간 비용을 거시경제지표와 비교해 보면, 중생산성·반공공재 기준으로 2004년 부모가 자녀 인적자본형성에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GDP 대비 9.5%에 해당한다(표 7 참조). 또한 2004년 교육서비스업(5.23%)이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3.10%)의 총생산보다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표 7> 2004년 자녀 인적자본형성의 시간투자의 GDP 대비 비중

(단위: 억 원, %)

		시간투자비용			GDP 대비 비중		
		모	부	부모	모	부	부모
고생산성	공공재	1,164,318	184,938	1,349,256	14.1	2.2	16.3
	반공공재	788,200	132,595	920,794	9.5	1.6	11.1
	사유재	558,916	99,341	658,257	6.8	1.2	8.0
중생산성	공공재	971,255	157,740	1,128,995	11.7	1.9	13.7
	반공공재	668,400	114,893	783,293	8.1	1.4	9.5
	사유재	481,554	87,245	568,798	5.8	1.1	6.9
저생산성	공공재	573,981	86,568	660,549	6.9	1.0	8.0
	반공공재	374,106	59,681	433,787	4.5	0.7	5.2
	사유재	255,213	43,167	298,380	3.1	0.5	3.6

주: 2004년 GDP는 826조 8,927억 원. 2004년 0~18세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약 982만 7,067명.

<표 8> 주요 산업과의 비교

(단위: 억 원, %)

	모	부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규모	668,400	114,893	179,253	432,814	256,181
GDP 대비 비중	8.08	1.39	2.17	5.23	3.10

주: 2004년 GDP는 826조 8,927억 원.

## V. 맺음말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사교육비 등의 자녀양육비와 기혼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자녀양육비 측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자녀 양육 부담을 밝히고 자녀양육책임의 사회적 분담방안을 강구하여 출산을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투입되는 금전 지출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비용인 간접비용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비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정확한 자녀양육비용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개별 가족의 입장에서 보

면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공적부조를 포함하는 사회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도 지원 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차세대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투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경제의 성과와 자원 현황을 파악할 때, 시간 자원의 투입을 포함한 인적자본부문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흐름과 변화를 추적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국제적 움직임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자녀양육에 의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큰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부담을 재정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은 저출산 사회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정책이다. 이때 자녀 양육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전지출만을 고려했을 때, 이 부담은 상당히 과소추정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되는 시간 자원의 비용을 고려해야 잠재적 부모가 직면하는 자녀양육비용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보육과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에서 여성의 시장노동참여에 대한 유인 정책이나 취약계층의 양육 지원 정책 등의 공적 지원이나 이전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간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족 영역에서 여성이 주되게 수행하고 있던 무급의 자녀양육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성평등적인 예산의 수립과 시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KLI**

#### <참고문헌>

- 김승관·조애자·곽혜경(2003), 「자녀양육비 규모 및 구조의 분석과 정책방안」,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2006),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 pp.33 ~ 49.
- Abraham, K. and C. Mackie (eds.) (2004), *Beyond the Market, 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Folbre, N.(1994a), *Who Pays for the Kids? : Gender and the Structures of Constraint*,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_\_\_\_\_ (1994b), “Children as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pp.86 ~ 90.
- \_\_\_\_\_ (2008), *Valuing Children : Rethinking the Economics of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Fraumeni, B. M.(2009), “Human Capital : From Indicators and Indexes to Accounts,” OECD Workshop on the Measurement of Human Capital, Fondazione Giovanni Agnelli, Turin 3-4 November 2008.

Reid, M. G.(1934),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 John Wiley.